

사설

태고종 화합 계기 돼야

11월 27일 신촌의 새절(봉원사)에서 태고종 제83회 정기 중앙총회가 열려 제22대 총무원장에 운산스님이 선출되었다. 태고종단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위하여 전임 총무원장인 해초스님은 종회의 개최와 동시에 원장직을 사임하고 새 집행부 탄생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난 1년동안 계속돼온 태고종의 내분은 태고종도 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지탄을 받아왔다. 태고종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는 소리와 함께 종단이 분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몇 달을 넘기지 못하는 총무원 집행부와 이를 둘러싼 내용, 그리고 혼란의 반복은 그나마 미약한 종단의 뿌리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 동안의 혼란이 이번 집행부의 출범으로 가라앉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마침 차제에 출범하는 운산스님의 집행부는 실제 총무원장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태고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중평이다. 한편으로 종단 불협화음의 핵심에 늘 자리했던 만큼 위법방구의 정신을 심본 발취하여 화합과 전진이라

는 종단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태고종은 조계종과의 대립 속에서 탄생한 것은 아니다. 근대 한국불교사에서 불교계의 혁신이라는 일대 화두에 대한 선택에서 출발했다고 보아야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의 태고종 현실은 어떠한가. 패배의식과 불개성화 속에서 종단의 방향마저 상실한 듯이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태고종 집행부가 출범하게 된 '새절' 봉원사는 근대 한국사에서 개혁세력의 진원지였다. 유대차와 오경석, 서재필, 이동인 등의 신진 개혁세력이 모여 세계의 흐름을 학습하며, 한국사회의 변혁을 꿈꾸었던 사찰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찰에서 출범하는 태고종의 새 집행부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태고종이 좀더 발전한 법사불교를 필요로 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충언하고자 한다. 태고종의 개혁 바람과 혼풍이 새절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

활발한 경승활동 기대

현대사회에서 불법을 펴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 중 첫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곳이 군과 경찰이다. 그 가운데서도 경찰 포교는 경찰의 업무를 지원하여 경찰의 신령을 돕고, 그래서 경찰이 대민업무에 종사하며 또 다시 불법을 펴는 순환적이고 확장적인 구조를 가지기에 어느 포교 현장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우리 불교계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포교와 전법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근심이었다. 그러하기에 이번에 태고종과 경승단에서 경승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법회를 열고 경승단칙을 새로 제정하는 등 경승 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이루어진 일은, 경승단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 점에서 지역 사암연합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 경승 활동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어져야만 한다.

우선 시급한 일은 경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알맞는 포교 방법을 개발하고, 경찰 내에서의 법회를 활성화 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찰의 대민 봉사 활동에 불교의 정신을 올바르게 발현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여, 불자 경찰들이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지니고 고유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후속작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지난번 원주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경승실에 설치된 불상을 철거하려고 시위를 벌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러한 타 종교의 부당한 처사에 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렇듯 올바른 경승의 위상을 확립하며 의연히 대처하는 모습이 요구되는 이 때에, 경승단이 분발 의지를 보인 것이 더더욱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이를 보다 큰 성과로 회향시키기 위한 불교계와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경승단칙 14년만에 제정

경승자격·위촉절차·기구 등 명문화
대의원 총회·지단장 회의 정례화

경승단을 조직적으로 운영해 나간 경승단칙이 출범 14년만에 처음으로 제정돼 경찰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대한불교 경승단(단장 도영스님)은 11월 26일 대덕 롯데호텔에서 경승총회를 열고 경승의 자격과 위촉절차, 조직기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승단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경승들의 관리와 자격기준 등이 엄격해 지고 경승단내 중앙과 지방의 조직체계가 재정비돼 대규모 기원법회는 물론 정보교류 등이 원활해 질 수 있게 됐다.

총 11장 제39조부칙 2조 별도로 정리된 경승단칙의 주내용을 살펴보면, 경승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성직경력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소속 지단장의 제청으로 경승단장이 추천한 뒤 해당 경찰기관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 경승의 위촉기간은 3년이며, 소속 지단장의 제청으로 경승단장의 재위촉 추천서가 있어야만 연합할 수 있도록 해 경찰포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애정 없이는 경승을 계속할 수 없게 했다. 경승단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

과 동시에 경찰청의 당연직 경승실장을 겸임토록 했으며, 각 지방청의 경승실장을 당연직 지단장으로 해 소속 지방청의 관서별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고의결기구로는 '대의원 총회'를 두었으며, 정기적으로 지방청별 공의를 수렴하기 위한 '지단장(지방청 경승실장 회의)'을 정례화해 중앙과 지단이 항상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사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단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단 경승실장 회의'와 각 경승실별 '경승회의'를 구성해 수시로 경찰포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9면



11월 29일 성북구 흥인원에서 열린 진각종 제9대 총인 해일 대종사 추대법회

“마음 깨치면 걸림없이 살수있어”

71면 해일 총인 추대사에서 계속

이날 추대법회에서 해일 총인은 법어를 통해 "일찍이 종조 회당대 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없는 법이 있으니 천지간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 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셨다. 법이란 무엇인가. 혹은 마음이라고도 하고 심이라고도 하고 혹은 도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며 혹은 부처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는 것이니 이 법을 깨친 자라야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을 것이다. 법이란 어디에 있는가. 가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멀리서 법계에

두루하여 빈틈이 없는 것이니 가난 속에 법이 있고 미움 속에 법이 있고 아만 속에 어찌 법이 없겠느냐. 가난을 깨치면 도를 알 것이요, 미움을 깨치면 심인을 얻을 것이요, 아만을 깨치면 부처를 이룰 것이니 어찌 미오(謎)가 다르다 할 것인가"라 하고 "종조의 법통을 이어받게 되었으니 신명을 다하여 오로지 이 법을 닦고 지킬 것입니다. 일백만 진언행자 여러분, 사부대중 믿는 형제 여러분, 이제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이 법을 다시 한번 받들고 닦아 감사다"고 설법을 가운데에 있고 멀리서 법계에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김영민 경찰과 함께...

외국인 자원봉사자 8일 발족

템플스테이 사업 동참

월드컵 등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홍보하게 될 '외국인대상 자원봉사자 연합조직'이 8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조계사 봉은사 통도사 등 '외국인대상 자원봉사자 연합조직' (이하 외사연)에 참여하고 있는 사찰 대표들은 11월 28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현재까지 외사연에 참여하고 있는 사찰은 조계사, 봉은사, 송광사,

통도사, 불국사, 통도사 부산 포교당, 연등국제불교회관 등 모두 7곳이며, 강원도 신홍사가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외사연은 우선 월드컵 기간 중 국제포교사와 자원봉사자 등 외사연 회원 500여명을 동원해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사연은 발족과 함께 영어·중국어 3개 국어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안내 지침서 제작하는 한편 불교관련 용어 통일화 및 번역 작업을 점진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민영교도소 9곳 신청

조계종이 5일 오후 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민영교도소 투자를 희망하는 재가불자들과 본말사 스님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영교도소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단체 3곳, 복지법인 1곳, 사설경비업체 등 사기업 4곳, 개인 1명 등이다. 사업의향서 제출 마감일은 12월 21일까지이며, 조계종 등 10~15개 단체와 개인이 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법규위장 밀운스님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밀운스님(봉선사 회주·사진), 간사에 범하스님(통도사)을 선출했다. 법규위원회는 9명의 법규위원으로 구성되는 종단 최고의 종헌 심판기관이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사서실장 범여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1월 27일 범여스님(전 내장사 주지)을 사서실장에 임명했다. 범여스님은 선운사에서 상원(尙遠)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76년 달성사 주지, 94년 내장사 주지를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제 7회 신행수기 공모

원고지 30매... 마감 12월 15일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내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7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요.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마감: 2001년 12월 15일
- △당선작 발표: 2002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
 -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 △시상내용
 -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특별상
 - 중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통화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상주 북장사

아미타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도공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해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웅장한 산세 힘차게 솟아오른 천주산 길상지에 자리잡은 북장사 극락보전은 여행(呂行)화상이 현종 원년(1660)에 불사를 시작하여 8년 만에 완공한 법당으로써, 본래의 법당 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 내부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음·대세지보살상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속종 2년에 모신 이 불상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 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璣王)이 부처님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 모셨다는 전단 향나무로 조성한 영험스러운 아미타여래좌상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금락보전 아미타여래 좌상과 관음·대세지보살 좌상의 개금불사의 대법원을 세웠습니다. 부디 이 '의복공양'에 적극 참여하시어 북덕 구축하신 부처님 인연따라 서로서로 착한 인연을 맺어 소원을 성취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신도님의 지극한 정성을 모으는 불사에 작은 정성이나마 협조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청컨대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이여!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을 기울여 이 거룩한 개금불사에 선연(善緣)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5년 12월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054)533-5103 ■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4377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교통편

- ◇고속버스: 서울→상주
- *택시이용
- ◇기차편: 김천→상주
- *택시이용
-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지판을 보고 들어시면 됩니다.